

GIST-전남대 학생팀, 발달장애인 위한 길찾기 앱으로 전국 창업대회 수상

- GIST 박주성 학생과 전남대학교 이유경 학생으로 구성된 '어시스트' 팀, 2024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 장려상 및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우수팀으로 선정



▲ '어시스트' 팀이 '2024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남대 이유경 학생, 동국대 한기용 교수, GIST 박주성 학생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박주성 학생과 전남대학교 디자인학과 이유경 학생으로 구성된 '어시스트' 팀(지도교수: 류제하, 팀장: 박주성)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심 길찾기 앱'으로 전국 창업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들은 8월 7일 개최된 '2024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창업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다.

GIST-전남대 학생팀이 개발한 이 앱은 발달장애인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길찾기 기능과 더불어 보호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고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은 길찾기 과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위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앱의 필요성이 크다.

'어시스트' 팀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디자인을 결합한 혁신적 솔루션을 제시하여 발달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 앱은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나침반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되었으며, **방향 감각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걷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어시스트' 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길찾기 앱 아이디어로 **우수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지역거점대학: 전남대학교)'의 **우수팀 2개 팀 중 한 팀으로 선정**되어 3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았으며, **올해 12월 중 개최 예정인 최종 성과공유회에 참여해 총 1억 5000만원의 상금을 두고 경쟁**할 예정이다.

*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청년 이탈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0개 거점 대학과 함께 매년 1,500명의 지역 기반 창업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국내 최초의 거점대학 연계형 청년 창업 육성 프로그램

어시스트 팀의 박주성 학생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의 가치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